

여당發 ‘물갈이론’...민주당 ‘쓰나미’ 오나

총선 불출마 선언 여파...한나라 공천쇄신 분위기 팽배

민주 호남권 중진의원들 “우리도 개혁 대상” 좌불안석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등으로 촉발된 여당 발(發) ‘물갈이론’의 여파가 민주당으로 까지 이어질 기미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22일 진보정당 통합을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물갈이 분위기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 같은 민주당 물갈이 대상의 중심에는 호남이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은 한나라당이 2003년 말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차떼기당(黨)’이란 오명(汚名)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터지면서 참패의 상황을 맞았다. 당시 언론에서는 146석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

해 50석 안팎을 얻으면 선전(善戰)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악의 전망까지 나왔다.

이에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현 경기지사와 남경필·원희룡 의원, 오세훈 현 서울시장 등 소장파들은 ‘60대(代) 용퇴론’ ‘5·6공(共)인사 퇴진론’을 제기하며 공천 개혁을 밀어붙였다. 이런 흐름에 밀려 당시 3선 이상 의원 16명을 포함해 27명의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영남권 공천에서 3선 이상 의원 20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이런 ‘공천 개혁’을 통해 한나라당은 탄핵 역풍(逆風)을 뚫고 121석을 건져내며 선전했다.

이번에도 한나라당 내에는 내년 총선 패배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물갈이 없는 공천은 총선은 물론 대선

패배로 이어진다’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위적 공천 쇄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난 17대 총선처럼 물갈이 여론몰이라도 나올 태세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민주당에 즉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수 정당한 한나라당에 물갈이 공천 바람이 부는 상황이 될 경우 보다 개혁적인 민주당이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물갈이 경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분위기는 호남권 중진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천 개혁의 의미가 희석될 것임은 물론 민주당 전체의 물갈이 공천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권 연대와 기득권 포기 문제가 걸려 있어 현역 의원은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당 일각에서는 호남의 대선 의원 중 ‘누구누구’가 우선 대상이라는 설도 서서히 돌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개혁특위에서 제시한 완전국민경선제에 이른바 ‘슈퍼스타K’(배심원단 심사를 통한 평가)를 가미하는 공천 개혁안이 무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물갈이와 신진인사의 수혈을 위해, 나아가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공천 물갈이 여론이 쉽게 수그러들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총선을 책임질 차기 당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갈이를 공론화하기 힘들어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 공천작업이 본격화할 때는 당내보다는 당 외각에서부터 고연 물갈이 여론이 쓰나미가 돼서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전대 ‘자율투표’ 변수

선거인단 21만명 ‘1인 2표’ 행사

계파 오더에 따른 투표행위 출몰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이 21만명으로 늘어나면서 ‘계파 지시’가 아닌 선거인단의 자율 선택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선거인단 투표 7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 최고위원 5명과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전대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전대 대의원 8881명보다 당원 중 추첨을 통해 뽑은 19만4076명, 투표참여를 신청한 청년선거인단 9443명을 포함해 무려 21만2400명이다. ‘1인2표제’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명목상 총 투표수는 42만2표다.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지난 2003년 전대에서 선거인단 22만7333명 중 12만9633명이 참여, 57.0%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22일 “선거인단이 더욱 늘어 계파 오더에 따른 투표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또 동원된 선거인단이라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2표 중 1표는 자율선택에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번 전대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은 친박계 대표주자로 나선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는 계파색이 옅은 데다 대부분 ‘탈 계파’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로 친이(친이명백)계 내부에서는 양대 축인 이상득 전 국회의부의 장이나 이재오 특임장관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표 응집이 지난해 전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친박계도 유승민 후보 외에 당권주자가 없어 나머지 1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율투표는 여론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지역별 비전발표회 현장 분위기가 선거인단의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전대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의 선거인단 장악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호남의 경우 선거인단의 표가 다양하게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동계 입’ 손낙구씨 손학규 ‘브레인’으로

‘노동계의 입’ 손낙구(49)씨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됐다.

최근 김현태 전략기획위원장, 문용식 유비쿼터스위원장에 이은 외부 수혈 케이스로 신선한 인사로 평가된다.

손 대표는 22일 공식적인 의원실 정책보좌관(4급)에 손씨를 임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 대표는 원내에 입성한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삼임위를 결정하고 정책보좌관을 공모했다. 이 공모에는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손 대표가 직접 면접도 실시했지만 인사 과정은 철저한 보안에 부처졌다.

건국대 사학과 출신의 손씨는 대학 졸업 후 안산 반월공단에 취업, 노동운동에 발을 들여놓았고 금속산업연맹 및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을 거쳐 99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4년6개월간 민

주노총의 장수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17대 국회 들어 당시 민노당의 원이었던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민노당 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초 민노당 분당 과정에서 진보신당으로 합류하지 않은 채 무당직을 유지해왔다. 특히 보좌관 시절 출간한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

손 보좌관은 손 대표 주요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 수립 과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손 보좌관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돼 온 만큼 사람들의 생활과 연결되는 경제정책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고민의 초점을 둘 것”이라며 “조용하게 뒤에서 보좌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수신료 인상안 전격 상정 22일 오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이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전격 상정하려하자 민주당 간사인 김재운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습뉴스

당대표 출마 박진 의원 광주서 기자회견 “권역별 비례대표로 호남 원내 의원 배려”

한나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진 의원은 22일 “빠를 짚는 반성과 쇄신을 통해 위기에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라며 “한나라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 각오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 금수장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한나라당은 위기상황”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 6개월 동안 국민에게 기대보다는 실망을 안겨줬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당정 관계를 이끌지 못하고 청와대



가수기 역할을 하는 등 기능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석패율제도 도입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은 한나라당 원내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불모지”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을 도입해 호남에 한나라당이 발을 붙이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민노 권영길 “진보정당과 통합때 총선 불출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2일 진보정당의 통합을 위해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진보진영에서 현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야권 통합·연대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 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비중 있는 정치인이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야권 전체로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진보정당 건설에 실패하면 3선이 아니라 10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백의종군하면서 오직 통합의 길에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신당과 통합 과정이 자리 문제로 비화하면 통합의 길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민노당 분당의 원인이 당직과 공직의 독점에서 시작됐음을 반성하고 크게 통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건설될 통합 진보정당에서 어떤 당직과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실현될수록 그것을 건너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이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며 “17대 국회에서 민노당은 참여정부와 정책적으로 대립했는데 이것이 먼저 청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점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 자연복지: 700평 ▶ 일반공업지역: 8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 건물: 300평, 200평, 200평
- ▶ 높이: 8.9, 10.9m
- ▶ 호이스트: 유, 유, 유
-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나라공인중개사

펜션별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별 2007년 준공

- 대 지: 10980㎡, 임야: 13937㎡
-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련원경치,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매출,계곡있음
- 매매가: 13억(근저당3억9천포함) • 실투자금: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울산면 월산리 • 대지: 1038㎡, 건물1096㎡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촌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한국아메리카유통물류단지 코너

- 대 지: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농지

- 대 지: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진리

- 전,답: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고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8480㎡ 공장부지: 3192㎡의 잡종지 담양목과방면2차선 도로접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010-6522-7731 FAX: 512-4589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마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 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